

【P1-11】

임신부의 생활습관과 비타민 B 섭취 실태가 임신결과에 미치는 영향

김도희*, 장남수

이화여자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식품영양학과

임신부의 영양은 임신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성장 발달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친다. 임신 중에는 영양소의 요구량이 증가되어 그 영양소가 결핍되기 쉬우며, 특히 비타민 B₂, B₆, B₁₂ 혹은 엽산의 결핍은 임신 합병증과 기형아 출산 그리고 자연 유산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임신부의 생활습관과 비타민 B 섭취 실태가 과거 및 현재 임신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 서울 지역 임신부 43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신체 측정치와 생활습관, 영양소 섭취량을 조사하였고, 임신결과는 출산 후 medical records를 참고하였다. 모든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SAS program version 8.2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. 임신부의 평균나이는 30.2 ± 3.7세였으며, 평균키는 160.6 ± 5.1cm, 임신 전 몸무게는 53.3 ± 7.4kg, pregravid BMI는 20.68 ± 2.61kg/m², triceps skinfold thickness는 25.15 ± 6.24mm로 나타났다. BMI 산출 결과 정상체중(18.5-25.0)인 임신부는 72.6% 였으며, 저체중(<18.5)인 임신부는 20.9%, 과체중(≥25.0)인 임신부는 6.5%였다. BMI와 과거 자연유산 경험 사이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. 그러나 저체중인 임신부는 정상체중군보다 기형아 출산경험이 높았으며(p=0.02), 다태아를 출산했던 비율도 높았다(p=0.0082). 또한 저체중인 임신부는 정상체중군보다 선천성 기형아 출산 경험 또한 더 많았으며(p=0.0054), 자궁의 임신(p=0.0099)과 조산(p=0.0082), 저체중아(p=0.0106)를 출산한 경험도 높았다. 흡연 여부에 관한 질문에 흡연 경험이 없다는 임신부가 90.7%였으며, 과거 흡연경험이 있는 임신부는 전체의 9.3%였다. 과거 흡연경험이 있는 임신부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자연유산 경험률이 높았다(p=0.0476). 임신부들의 출산후 임신결과를 조사한 결과 흡연경험이 있는 임신부들은 흡연경험이 없었던 대상자들에게서보다 저체중아 출산 비율이 높았다(p=0.0096).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음주 경험이 없는 임신부는 53.0%, 임신 후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45.4%, 임신중에도 술을 마시고 있었던 사람은 1.6%였다. 출산 후 임신결과를 조사한 결과 과거 음주경험이 있었거나 임신기간중에도 술을 마셨던 임신부들은 그렇지 않은 대상자들보다 저체중아를 출산한 비율이 더 높았다(p=0.0288). 임신부의 총 체중 증가량과 신생아의 출생체중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(p=0.0002). 입덧이 심한 임신부는 입덧이 심하지 않았던 임신부보다 신생아의 1분(8.18 ± 0.79 vs 8.44 ± 0.95, p=0.0017)과 5분(9.40 ± 0.67 vs 9.58 ± 0.71, p=0.0120)에서의 Apgar score가 모두 점수가 유의적으로 낮았다. 조사 대상자 중에서 권장량 75%미만으로 Vit B₆를 섭취한 영양위험 집단에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험(p=0.0153)과 자궁의 임신을 경험한 비율(p=0.0083)이 Vit B₆를 권장량 75%이상으로 섭취한 대상자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. 또한 이들 영양위험집단에서는 조산한 경험(p=0.0120)과 저체중아를 출산한 경험도 많았다(p=0.0153). 엽산을 권장량 대비 50% 미만으로 섭취한 임신부는 그렇지 않은 임신부보다 자궁의 임신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(p=0.0240). 이러한 결과로 보아 임신부의 생활습관과 비타민 B의 섭취상태는 유산, 자궁의 임신, 다태아와 선천성 기형아 임신, 조산, 저체중아 출산 등 임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. (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2001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연구비(01-PJ1-PG1-01CH15-0009)에 의해 진행되었음)